

해설 제주도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배경은…

민선 8기 성공 마무리 위한 조직 안정 중점

도민 안전·경제 활성화 전략적 인력 배치에 주력
칭다오 항로·BRT 등 현안 부서 국장들 새 얼굴로
오 지사 “새로운 제주 미래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

제주도는 15일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마지막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2025년 하반기 인사에서 공공정책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양제윤 국장이 6개월여 만에 안전건강실장으로 전진 배치되는 등 모두 합쳐 878명 규모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실시되는 인사인 만큼 조직 전반의 안정을 기본 기조로 삼았다. 이에 더해 포괄적 권한이 있는 양제윤·에너지·디지털 대전환, 국제 물류 혁신 등 핵심 부서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실행력이 검증된 인력을 중용했다.

인사 내용을 보면 안전건강실장, 경제활성국장, 기후환경국장, 교통항공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등이 승진 또는 전보를 통해 새 얼굴로 바뀌었다. 분야별로는 도민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배치에 주력했고 그간 행정직렬이 맡았던 농축산식품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은 과학기술직렬을 임명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제주형 건강주지의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을 위한 전략, 제주~칭다오 화물선 정기 항로 논란 확산 대응 방안,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시행 이후 도민 불편 해소책 마련 등 현안에 따른 과제가 적지 않다. 오영훈 도정으로선 6·3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 당장의 성과를 떠나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장기 교육에 들어가면서 6개월여 만에 교체됐다.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10월 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과장 모두 새 인물로 승진 발령됐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도체육진흥과장이 1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 인사이동이 잦아 체육계 홀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한 ‘성과 우수 공무원 발탁추천제’를 지속 운영해 4·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실제 업무 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승진시켰다. 적극 행정 우수자, 격무·기피 업무 수행자 등에 대해선 희망 보직 신청 시 우선 반영해 선호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를 늘렸다.

새해 시무식에서 2026년을 ‘미래 산업과 멀거리 확정의 해’로 제시했던 오영훈 지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민선 8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모든 직원에게는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오 지사, 내란 동조 혐의 2차특검 수사 대상 오르나

민주,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2차 종합특검법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자체 동조 혐의가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내란 특검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고 한시름 내려놓았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건진법사·명태균 씨 관련 선거 개



15일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12·3 비상계엄 당시 지자체 동조 혐의에 대한 특검법 등이 상정되었다.

입 의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 등 14개 혐의 또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을 보낸 뒤 90일 동안 수사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1회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2차 특검법 본회의 처리에 종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을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무

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특검수사기간이 두차례 연장되면 최대 170일 활동할 수 있는데, 6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2차 특검법이 통과되면 12·3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청사 폐쇄 논란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에 대한 수사도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오 지사에게 제기된 내란 부화 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 지사를 포함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자체장은 없었다.

내란특검은 당시 일부 지자체장들이 청사 폐쇄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와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소리는 오영훈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가 있어, 불필요하게 지구 지정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지사가 투자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 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반환해야 하는 문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김한규 의원,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지 법안 발의

지구 지정 ‘해지’ 근거 마련
불필요한 행정 부담 해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없어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투자계획이 모두 이행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제’ 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반환해야 하는 문

터 1월생은 16만8000원, 12월생은 1만4000원을 받는 등 월 1만4000원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았던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을 받는다.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상금 지원 시간대도 개편됐다. 그동안 금·일요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지원했으나, 요일에 관계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일요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한다. 또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oso8385@ihalla.com

◆◆◆2022년 ~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제58차 조합원 정기총회 개최 공고

정관 제30조 및 제32조에 의거하여 본 조합 제58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총회일시
2026년 02월 06일(금) 오전 11시

2. 장소
제주성안교회

3.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25회계년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의안 : 2025회계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 제3호의안 : 2026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의안 : 상임임원 보수 결정의 건
- 제5호의안 : 상임이사 선임의 건
- 제6호의안 : 상임감사 선임의 건
- 제7호의안 : 전문임원 선임의 건
- 제8호의안 : 상임이사장 및 임원 선출의 건

알림

※ 총회 참석은 조합원(본인)만 입장 가능하시며, 조합원께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30분전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차장이 협소하여 훈장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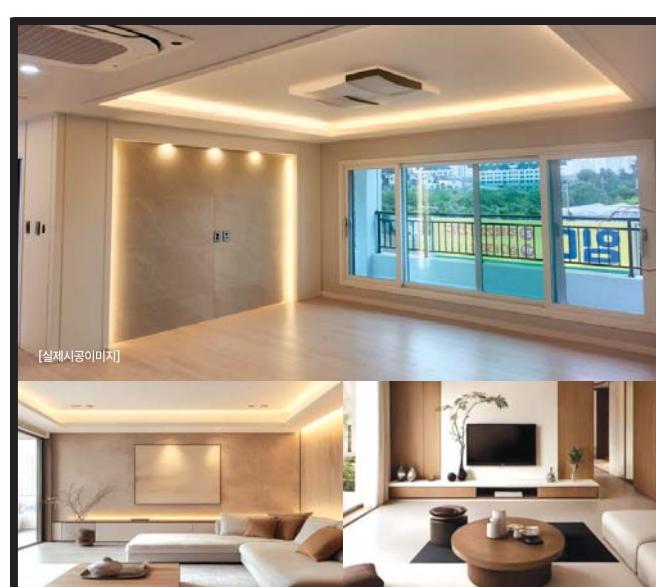
2026년 01월 16일

한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강정신

외국인 근로자 및 동반가족 통합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 시 : 2026. 1. 22(목) 10:00~17:00
- 장 소 : 제주관광대학교 체육관
- 상담 내용 : 취업, 근로, 법률, 의료, 출입국(비자), 생활안전, 생활상담 및 지원 등
- 주 최 : JTU 제주관광대학교 RISE 사업단
- 주 관 : 국제가정문화원
- 후 원 : JTU 제주관광대학교
- 문 의 : 국제가정문화원(064-742-5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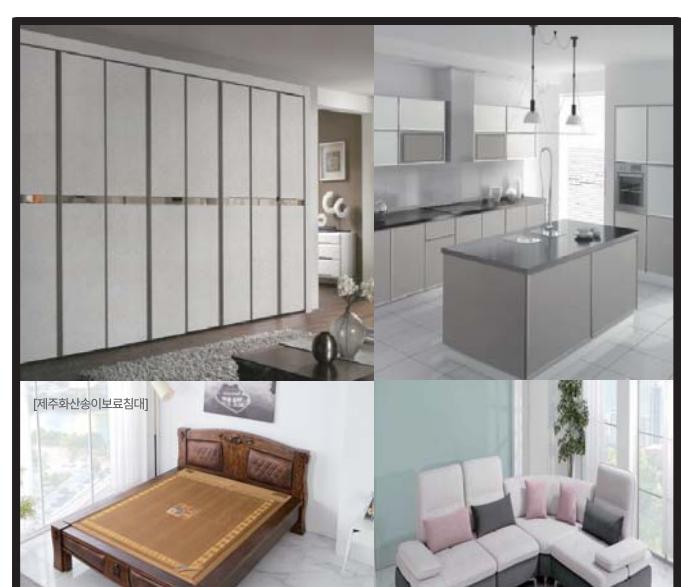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씽크대 제작 / 불밖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 758-0065